

# “구정 이해의 폭 넓혔습니다”

## 주민참여. 열린 행정 구현위한 1일 명예과장제 ‘호응’



지난달 명예과장으로 위촉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린 행정 구현을 다짐하고 있다.

‘1일 명예과장제’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도 김남희(감만동 새마을부녀회)씨 등 11명이 명예과장으로 위촉돼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명예과장들은 이날 하루 동안 부서장으로서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직원과의 대화 순서를 가진 다음 현장을 찾아 부서별 현황을 살폈다.

특히 현장방문 시간에는 대면형식

주민대표 하루 동안 구정체험 주요 사업장 찾아 현황 살피

도시와 백운포선별장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 시범 아파트, 스카이워크 공사 현장 등 구 역점사업장을 둘러보며 사업 추진 배경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며 구정 이해도를 높였다. 현장방문에서는 명예과장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김나연 명예과장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후원기관 발굴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성욱 명예과장은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최우선 방안을 강조했다.

이순덕 명예과장은 스카이워크 공사의 완벽한 마무리만큼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구는 명예과장들의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지난달 하루동안 명예과장으로 활동하며 남구 주요 현안사업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명예과장들은 구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구정 이해의 폭을 넓혔다. 사진은 위에서부터 주요업무 보고(토지관리과), 직원과의 대화(주민복지과), 재활용품 선별장 방문(청소행정과), 토양오염정화 사업장 방문(환경위생과), 꽃골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지 방문(경제진흥과), 측량현장 방문(토지관리과)다.

변영기로 했다.

한편 남구는 2011년 7월부터 지역의 각급 단체장과 통장 등 주민대표를 명예과장으로 위촉, 구정참여를 통해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열린 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65명의 명예과장이 배출됐다.

## “정부 교육정책 자문역할 충실히 하겠다”

설동근 동명대 총장, 교육부 제1기 정책자문위원장 위촉

설동근 동명대 총장이 지난달 22일 교육부 제1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겸 미래교육전략분과위원장에 위촉됐다.

설 총장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등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 정부가 성공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 총장은 또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내 최고의 교육전문가 12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부가 수립하고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국민과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며 “앞으로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조율해 정책자문위원회가 미래지향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교육정책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설 총장은 취임 초부터 각종 사업과 시책을 추진하며 동명대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동명대학교는 최근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 최우수 평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등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둬 약 1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며 “특히 동명대 설립 이후 처음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으로 선정됨으로써 탄탄한 지방 사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이 사업비를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 투입해 학교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와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설 총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의 평생교육 수요와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학이 남구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남구에 소재한 대학으로서 남구의 발전과 남구 주민에 기여하는 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동근은 총장은 3선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교육전문가이다. 용호초등학교에서 처음 교편을 잡기 시작하며 남구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활용하세요”

오류도 친절지기

주민지원과 조혜숙 사례관리사

드림스타트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삶의 활력과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아동들과 그 부모들의 칭찬 메시지가 무더위를 식혀주는 한줄기 바람처럼 감동으로 전해져온다.

“조혜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민하고 우울감, 상처가 많은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었는데 드림스타트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성격도 밝아지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큰 행복임을 느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부모들의 칭찬 염서는 한결같다. 조혜숙 씨는 아동들과 부모들에게 적절한 상담은 기본, 보완점을 파악해서 육아수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아이들과 부모들이 변화하여 표정도 밝아졌다. 일상의 기쁨과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고 한다.

조혜숙(38·사례관리사)씨는 2007

년 사하구에서 희망스타트사업 사례관리자로 2009년까지 상담을 했다.

2010년 이사를 오면서 남구청 드림스타트에서 새로운 아동들과의 만남이 시작됐다. 네 자녀의 엄마이기도 한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보다 드림스타트의 아이들에게 쏟는 시간이 많다. 그러나 엄마의 직업 특성상 드림스타트의 생활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적용되기도 한다.

방학숙제인 엄마의 직장 체험하기를 통해 중학생 아들이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미소를 짓는 조혜숙씨. 한 때는 간호대학을 나와 병원에서 근무했었다고 한다.

일반 가정에 비해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환경이 다르다보니 심리상태, 건강, 배우는 것 등 열악한 부어 많다.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서비스(인지/정서/건강)를 기획한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체크하며 많은 보람을 느낀다.

가장 보람에 남는 대상자는 깨끗하게 인사를 잘 하는 아이였다. 길 가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하는 아이였다. 이 가정은 아빠가 병원에 계셔서 엄마가 간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누나들이 있었지만 동생에게



소외가정 자녀 교육 상담 역할  
아이·부모 긍정적 변화 ‘보람’

관심을 가지지 않아 개별적인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과 공부집중이 안되고 애정결핍까지 생긴 아이에게 심리치료와 학습클리닉 개입, 부모상담을 하여 엄마가 집으로 올 수 있게 코치를 해 주었다. 아이가 안정된 것은 물론이고 두드러진 것은 전 과목 성적향상이었다. 가끔씩 감사하다고 엄마에게서 전화가 온다고 혜숙씨는 얘기한다.

드림스타트의 총 대상자는 약 500여명. 5명의 선생님들이 관리를 한다. 심각한 아이들은 위기의 정도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다.

최정순 기자

## 남구볼링팀 합숙소 입주

선수 사기 진작 좋은 성적 기대



새 동지들 틈 볼링팀 선수들이 입주를 축하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남구청 볼링팀은 지난 16일 합숙소 입주식을 갖고 새동지들 틈 있었다. 합숙소는 용당동에 소재한

아파트로 이전 합숙소에 비해 넓고 쾌적해 7명의 감독과 선수가 생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입주식에는 남구청장과 남구체육회 이순준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해 입주를 축하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준만큼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달라고 주문했다.

김희순 감독은 “구와 체육회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새로운 합숙소에서 생활하게 돼 선수들의 사기가 높다”며 “앞으로 훈련에 더욱 매진해 좋은 성적으로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볼링팀 합숙소는 지난 2011년 부산시체육회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아 대연비치아파트에 처음 운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설이 낡고 좁아 선수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 오던 중 구재정으로 부족한 전세금을 예산에 반영, 이번엔 보다 넓고 쾌적한 합숙소로 이전하게 됐다. 한정미 기자

용호1동 배찬노 주무관

개인전 ‘우주주의 시작’ 열어

용호1동에 근무하고 있는 배찬노 <사진>씨가 자신의 10번째 개인전 ‘우주주의 시작’을 연다.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경남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인물과 풍경 등을 담은 관화 작품 14점이 선을 본다.

배찬노씨는 부산대 일어일문학과와 경성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2005년 타워갤러리에서 한국의 첫 ‘부채’ 선포제출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번에 걸쳐 개인전을 열었다.

☎010-7733-2255

## 신일 이불 솜 공장

- 훈수 전문 매장
- 맞춤 이불 제작
- 현수 개조
- 각종 솜 도매
- 전지역 배송가능

☎ 051)626-3558  
☎ 010-3831-2457  
010-4722-1771

☞ 위치 : 용호3차출소 옆  
☞ 주소 : 부산시 남구 용호동 497-5번지



아모레 퍼시픽 헤라·설화수 주부사원 모집

재미있게 같이 일해요!!!!

- 급여외 의료비, 경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육아 보조금 지원
- 10시 출근, 일·공휴일 휴무
- 미용전문기 육성
- 기타 다양한 지원혜택

헤라·설화수  
판매·상담  
☎ 627-2225

친절상담 - 최경숙 부장

주.야 직통상담 : 011-579-1122

아모레 퍼시픽 남부오름지점 T.627-2225

## “고려요양교육생모집(수시)”

- 개강일 : 9월2일(20일 교육, 이론·실기)
- 국가시험등록 : 2013. 9. 2~9. 6 • 시험일 : 2013. 11. 9(토)

천사복지센터에서 무료 활법시술합니다  
거동불편하신 분 공단에 판정신청해 드립니다  
취업상담 : 고객센터 운영합니다

원장 윤삼도 활법사,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역임  
활법(活法) :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기법

고려요양교육원 ★ 천사복지센터

☎612-8876, Fax 612-8872, H·P : 010-9630-5619

[주]진성코리아 부산본사  
♥ 국제·국내 결혼전문회사 www.jkv.kr

- 국내 : 공무원, 의사, 판 검사, 전문직, VIP, 일반직 다양한 회원 확보 초, 재혼 황혼까지 당신의 사랑과 행복을 찾아드립니다.
- 국제 : 동남아 7개국 전문 베트남동역 상주근무 사후관리 철저, 신부무료교육 주2회 4시간, 국제결혼서류대행, 부모초청비지서류, 귀화서류, 국적취득, 항공권예약 무료대행

현명한 선택방법 반드시 회사홈페이지를 열어보시고,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가장 믿을 수 있는 모범회사를 선택 당신의 행복을 잡으세요.

국제 등록번호 : 부산 003호 | 국내 등록번호 : 부산 005호 | 사업자등록번호 : 608-81-63303

365일 무료 출장상담 환영

대표전화 557-1300 인터넷 070-8238-5252 연중무휴 상담전화 010-4550-3085

부산도시철도1호선 동래역 2-4번 출구 앞

매월초 개강!!

12개국어 전문

## MLS외국어학원

www.mls.co.kr

기초문법	일본어	이태리어
영어회화	중국어	독일어
TOEIC	스페인어	베트남어
TOEFL	프랑스어	터키어
OPIC 오픽	러시아어	아랍어

교육상담 T.051) 610-1500  
경성대맞은편 21센츄리O/T 12F

노동부 국비지원 컴퓨터교육

초보자 컴퓨터교육 [기초반·자격증반 개강]

실업자 [재일배우자]	훈련과정	개강일
재직자 [직정인]	엑셀/파워포인트	9월 16일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9월 16일
	E-TEST 자격증	10월 21일
	ITO 자격증반	
	분사실무	
초·중·고 대학생·일반부	엑셀/파워포인트	매월 개강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워드1급/컴활 12급	
	ITO 마스터/포토샵 - (GTO)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수시 개강

동명정보처리학원 ☎623-0854  
www.dmincom.net 용호사거리 숭바골이더윙